

도서전 . 열기로 . 한류 열풍 . 이 . 어 . 간 . 다 .

오는 3월 2004년 방콕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우리 출판계가 '출판한류 열풍'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태국에서는 이미 '겨울연가' 등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몰이를 한 데다 소설가 위기철 씨의 성장소설 《아홉 살 인생》 태국어 판이 1만 부 이상 판매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한류바람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 태국출판협회 회장단이 태국 유력 언론계 경영을 맡고 있어 한류 홍보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방콕도서전에 대한 태국인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중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 2003년 도서전의 참관인은 75만 명에 달했다. 보통 일주일 남짓 열리는 다른 국제도서전에 비해 12일 동안 전시회가 지속되는 것도 바람몰이 가능성의 단서로 꼽을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이하 출협)는 출판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주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콘텐츠화하고 있다. 출협은 주빈국 프로그램을 전시와 문화행사, 두 개의 축으로 진행하되 전시에서는 한국문화의 정신적 깊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문화행사에서는 '오늘의 한국문화'를 알리면서 대중적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일 계획이다. 이런 의도에 따라 '책으로 보는 한국'에서는 한국의 자연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화보 중심의 책 300여 권을 전시할 예정이며, '한국대표작가전'에서는 한국의 인기작가가 태국으로 건너가 강연과 사인회를 갖고, '한국전자출판물전'에서는 이미 콘텐츠가 다량 집적된 다양한 전자출판물을 선보여 IT산업의 동력이 어디까지 전개돼 있는가를 확인시킬 예정이다. 또한 '한국어와 한글'을 통해 한국의 언어문화와 문자문화의 깊이를 알리면서 '가고 싶은 나라 한국 관광관'을 병행해 문화향수 욕구와 체험 욕구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행사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대중적인 아이콘들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어린이 난타 공연', '한국 가요대회', '한국 음식잔치' 등은 한류열풍의 향목을 전방위적으로 넓혀 보겠다는 포석으로 읽히는데 이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태국 내 한국문화의 영향은 확산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협은 이들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한국 출판계 소개 강연회', '한국 정부의 출판정책', '한국 원화가 만화가 시연회', '한국영화제' 등 본격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성과 전통성의 결합을 추구하는 셈이다.

이번 주빈국 행사는, 권역은 다르지만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앞두고 개별 콘텐츠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특히 출판 이외의 분야에 대한 태국인들의 호감도를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참관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 콘텐츠의 수정 변경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이런 점에서 요구된다.

한편 출협 관계자는 "방콕도서전에 참여할 한국 출판사가 10~20개 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러나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그 부수적인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더 많은 출판사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콕도서전은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린다. **☞**

임동현·본지 주간

# Bangkok International Book Fair



위) 2003년 방콕도서전 공식 포스터. 방콕도서전은 일주일 남짓 열리는 다른 도서전과 달리 12일 동안 전시가 지속된다. 아래) 2003년 방콕도서전 중국주빈국관. 전시회 기간 동안 75만 명이 이곳을 다녀갔다.